

방 안의 코끼리

정진홍의 겉치 엔지니어링



겉치엔지니어

오랫동안 한남동 '리움'에 갔다. 리움은 우리나라 사설 미술관의 대표 격이다. 물론 한때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개막 전시로 문을 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기획전 'WE'는 단지 '무료' 여서만이 아니라, 고매하고 거창한 미술사적 사전 지식 같은 것이 없이도 누구나 자기 눈높이와 시선으로 작품과 마주해 그것을 해석하며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성공적이다. 1960년 이탈리아 출신으로 요리사, 정원사에서 시체 씻기 알바까지 온갖 일들을 해오며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그이지만, 카텔란의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각자의 처지에서 나름대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해석적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카텔란의 전시는 작가는 리움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크게는 미술이 돈 있는 사람들의 호사가 아니라, 내 시야와 눈길이 닿아 내 나름대로 느끼면서, 나와 한 호흡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 펼쳐지는 생활의 일부임을 새삼 발견하게 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문제
흰 천으로 가린다고 문제없는 게 아니다

싶다. 그럼 이 벽화 속 발바닥은 상상인가? 아니다! 작가 카텔란 자신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이고, 어머니는 청소부였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온갖 잡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했던 그 자신이 자기의 발바닥을 그려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물고 있었던 것이다.

남들 보기에 자식을 제아무리 그럴 듯하게 키워놨다 해도 부모의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자식은 딱 거기까지다. 오늘 자기 자신이 두 발로 세상을 향해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까지 아버지의 발바닥이 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식의 미래는 결코 단단하게 열리지 못할 것이다. 함께 고생해본 자식이라야 아버지의 존재를 아는 법이고, 자신의 미래도 제대로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의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재벌 3, 4세들에게 걸어진 것이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2세까지는 그런대로 아버지의 고생을 몸으로 안다. 하지만 3세가 넘어가면 알기가 어렵다. 귀한 돌림보로만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에 아버지의 거친 발바닥과 자신의 보드라운 발바닥이 결코 같은 땅을 밟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육살이를 통해서라도 세상 바닥을 자기 발바닥으로 디터봤으니 차라리 다행이란 생각마저 든다. 땅이 혈통을 만드는 것이지 돈이 혈통을 만드는 게 아니다. 발바닥이 새로운 시장을 일구지, 사인만 하는 손가락이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도 다른 전시 공간으로 들어서니 방 안에 흰 천을 두른 채 눈과 코 그리고 발 부분만 드러내놓은 채 커다란 물체가 서 있었다. 한눈에 코끼리임을 모르진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리켜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고 표현한다고 하지 않던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과 심지어 언론마저 딱 그 형국이지 않을까 싶었다. 왜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는가!

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 지난 1월 한 달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 자그마치 127억달러가 아니라 127억 '달러'다. 한화로 16조원이다. 게다가 11개월째 적자다. 앞의 정권 맞출 일이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윤석열 정부가 해쳐가야 할 최고의 당면 과제가 다름 아닌 무역 적자 해소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애꿎게 당대표 뽑는 일에 뒤엉켜들고 말았다. 안철수가 끌어들었다고? 안철수만 대통령을 팔았는가? 설사 그렇다 해도 대통령실이 당무에 관여하듯 그렇게 나서야만 했는가?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 같지 않은 말까지 나와버렸다. 말[言]이 꼬이다 못해 거꾸로 매달린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텔란이 박제된 말[馬]의 머리는 벽 속에 처박고 몸통을 밖으로 빼낸 것처럼 설치해 놓은 작품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작금의 우리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社 說

조폭 행태, 시너 파업 노조 골라 '모범상' 준 민노총

민노총이 7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연중 대규모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7월 2주간 총파업 등 강력한 정권 심판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화물연대, 건설노조 부산을 산정남지역본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에 '모범 조직상'을 수여했다. 이날 지난해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을 받은 조직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물류를 불모로 자신을 익숙한 채우려고 16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대형 트럭을 운행 중인 다른 운전기사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원칙 대응에 사실상 백기 투항한 했지만 이에 따른 경제 피해만 4조원에 육박하는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건설노조 부산을산정남지역본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동조 파업을 했을 뿐 아니라 간부들이 조폭처럼 건설 현장을 돌며 돈을 뜯어내다 구속된 조직이다. 현장에서 벌인 불법행위가 조폭들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

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정거 파업으로 회사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조직이다. 대우조선 직원들과 거제 시민들까지 만류에 나섰지만 시너 통을 들고 조업 현장을 점거해 수천억원 손해를 입혔다. 이런 일을 벌였다고 모범상을 줬다니 이보다 더 민노총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민노총이 거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억지와 불법, 폭력 등 무소불위 행태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들만큼 기록권을 누리는 세력도 없을 것이다. 민노총 산하에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노조가 수도무다. 그런 기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약자 행세를 하며 불법과 폭력과 집단 괴롭힘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점점 커지고 민노총 노선을 비판하는 MZ세대 노조도 세를 키우고 있다. 그래도 민노총은 조금도 자성하지 않고 조폭 행태, 불법 억지를 더 강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민노총이 스스로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동 개혁은 이런 민노총 행태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동영상 사설

국회에서 품위 있는 말을 쓰면 야당 의원답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 까리 기름 먹어요"라고 물었다. 한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립니까"라고 되물자 "왜 이렇게 간직대요"라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이 "잘 모르나"고 하자 나온 말이다. 정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세워놓고 "72시간 후면 집에 가서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나"고 묻기도 했다. 국회가 아니라 일반 시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사람은 드물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고 물었다.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한 장관이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하자 이 같은 질문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 자 쓴 거 아니냐"며 "그럼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마치 한 장관과 싸우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 같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련 영상들에는 "세금이 아깝다" "정치 현실이 서글프다" "낯 뜨겁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로 표기된 '한국3M'을 한 장관의 자녀 이름으로 오인하고 질의하거나, '이모' 교수를 엄마의 자매를 뜻하는 이모(姨母)로 오해해 '후보자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 쓴 거냐'고 묻는 촌극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한 장관에 대한 과도한 견제 심리 탓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든지 국회에서 품위 있게 말하고 지적할 수 있다. '청담동 송자리' 같은 거짓에 대해선 사과하면서 따질 것을 따진다면 국민 지지도 더 높아질 것이다.

경기 침체 속 공공요금 동시 인상, 경제에 악순환 만들 수도

올겨울 서민 가계를 직격했던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전기료 인상에 이어, 2월 들어선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됐다. 서울 버스 요금은 4월 말 300원 인상이 예정돼 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가 상승분이 아직 덜 반영된 전기·가스 요금 등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작년 38% 올랐던 가스 요금은 1분기엔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이 닥쳐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5.0%로 꺾였는데 올해 1월엔 5.2%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1년 전보다 28.3% 오른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유지해온 '정치 공공요금' 포퓰리즘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럽연합의 3분의 1 수준인 전기 요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제 LNG 가격이 3배 오르는 동

안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가스 요금, 연 1조원 적자를 내면서도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를 39년째 유지한 서울 지하철 등 지속 가능한지 않은 정치적 요금 체계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포퓰리즘 유혹을 뿌리치고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옳다. 하지만 정책에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인플레이션 방어' 정책을 펴오다가 한꺼번에 고베 플린듯 공공요금을 동시에 올려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은 모순처럼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품목 가격을 연쇄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되면 경기 침체 속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 내수 침체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 경제에는 심리도 중요한 만큼 국민에게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을 한꺼번에 지워 과도한 경기 위축을 자초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시다발적 인상 대신 인상 시기를 조율하는 등 경제 운용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윤석열과 자유국민, 식물 된다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나, '안철수의 국민의힘'이나... 이도 저도 아닌 중간파에 당을 넘겨준다고?

한국의 정치갈등,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제1 전선

오늘의 싸움은,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사건] + [이재명-이화영-김성태의 대북송금 혐의]가 상징시키는 가치의 전쟁, 이념의 전쟁, 역사관의 전쟁이다.

이 싸움에서 주적(主敵)은, [북한 + 주사파 RO(혁명조직) + 문재인-이재명 + 조폭-마피애다. 아군(我軍)은, [자유 대한민국 + 미국 + 유엔 + 인도-태평양 자유국가들]이다.

한국 정치의 제2 전선

위 제1 전선을 앞두고, 한국의 비(非) 좌파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vs [안철수의 국민의힘]으로 갈라져 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자유주의-법치주의의 길이다. [안철수의 국민의힘]은 유승민-이준석이 보여준 '그 어느 중류인민의 중간파'의 길이다.

싸움의 본질

이 두 전선에서 자유 대한민국 진영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공시절의 수혜층 출신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또 좌파 세(勢)에 맞서려 한다. 이 기회 주의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뽑은 자유 국민은 식물화할 것이다.

국민은 언제까지 선동과 가짜뉴스에 현혹당할 것인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책임 있는 판단이 있기를 대망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만세!
인민민주주의의 타도!
기회주의의 역선택 노(NO)!**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